

제31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4월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장 김대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28억 1,331만 2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2억 2,207만 9천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 규모는 30억 3,539만 1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 중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서

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난 4월 11일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4월 20일과 21일 이틀간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9,5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1~22일 이틀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억 8천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 총 209억 3,963만 3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용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고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받은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께서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능강숫대문화공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제천이 남부권의 새로운 관광의 명물 케이블카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케이블카 이전에는 문화재단지 그리고 숫대, 그리고 능강 상천을 넘어서 옥순대교 그래서 국궁장 등 슬로시티 그리고 단양으로 빠지는 일련의 관광코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케이블카가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케이블카의 뛰어난 상품 때문에 숫대공원이 좀 다소 침체됐던 것만은 사실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런 침체의 숫대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간판 등 여러 가지 사업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 숫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금수산 그리고 어떤 청풍호 이런 것과 잘 어울리고 걸맞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초창기에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2005년도에 시작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2005년도에 6월 달에 준공되고 2005년도 7월 13일 날 개관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17년째 맞고 있네요, 17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17년 됐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정도에서 한 제가 10여 년간은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워낙 주 관광상품이니까 밀리는 형태, 그렇지만 이 숫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관리를 안 하면 흉물이 돼 버려요. 또 관리를 잘하면 또 예쁘고 의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연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의미를 찾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마땅히 지금 옥순봉 출렁다리가 생기고 케이블카에서 옥순봉 출렁다리까지 한 35분 정도 거리, 중간에 어떤 징검다리 상품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나 목적이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배부해도 가능한지요?

○**이재신 위원** 예, 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지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강숫대 개선 추진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능강숫대문화공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강숫대문화공간은 2005년 6월 달에 준공하였으며 그 해 7월 13일 개관하여 윤영호 관장이 17년간 운영, 2000년도 중반 이래 중부권의 주요 관광명소이자 제천 문화관광 콘텐츠 및 대한민국 내에 숫대를 대표하는 전시문화공간이었습니다. 숫대문화공간 운영 초기에는 적극적인 지원과 숫대를 다룬 이색적인 전통문화 공간으로서 전국 행사장에 전시되었고 언론매체 등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청풍 케이블카, 옥순봉 출렁다리, 생태공원 등 관광명소가 생겨나면서 점차 숫대문화공간이 밀려나 2000년도, 전년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과거 인기 관광지로서 명성이 많이 퇴색했습니다. 청풍호 케이블카, 모노레일, 생태공원, 옥순봉 출렁다리 등 하나의 관광지역을 묶으

면서 떠오르는 능강숫대문화공간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제천시 관광 중심지로 재도약하려는 본 목적이 있습니다.

개선사업 추진이유는 2005년도 개관한 대한민국 숫대를 대표하는 전문 전시관이면서 제천의 인기 명소였는데 근래 연달아 성공한 청풍호 케이블카 및 옥순봉 출렁다리, 생태공원, 금수산 등산객 등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관광이 늘어나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오래된 전시관 입구 및 전시관에 있는 숫대들의 변색 및 노후화, 능강숫대문화공간의 관심 저하, 능강숫대의 전시 및 시설물이 원활히 정비되지 못해 관광객들이 흥미를 잃어 발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이 관광지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능강숫대문화공간을 활용한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 기존 숫대를 색채 작업으로 시안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이목을 이끄는 인기 포토존을 만들어 발돋움 및 SNS 홍보물을 통해 청풍, 능강숫대문화공간, 옥순봉 출렁다리, 생태공원을 연계한 제천 관광벨트를 만들어 외지인 관광객이 즐기고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전시관 외부에 도울 김영옥 선생의 친필 내용을 활용한 소형 입간판 설치해 관광객이 관람하고 이를 돕고 문화공간 구역마다 숫대의 역사, 기업 및 변천과정 설명, 4개 소형 입간판 설치하여 문화공간 내 희망숫대 구역을 돌탑대형 나무숫대 및 중형 나무숫대 신규 제작하여 주변 소나무와 돌탑 등 금줄을 연결함으로써 제천의 희망소도의 전통적인 최대한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숫대가 우리 시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조성하려는 개선사업입니다.

○이재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선사업, 리모델링, 보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있던 형태를 재보수하는 형태로 흐르면 안 되고 이런 걸 개선할 때 뭔가 유니크한 색다른 것들을 가미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니까 컬러숫대라는 게 나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컬러숫대를 제작합니다. 일반 현재는...

○이재신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컬러숫대라는 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현재는 검은색으로만 나무로만 돼 있어 가지고 거의 다 퇴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색다른 컬러숫대로 해서 주간에 안 보이지만 야간에도 볼 수 있게 색다른 묘미를 살리려 그립니다. 그래서 그 숫대를 컴셋을 해 가지고 이런 걸 보완해 가지고 하나의 작업하면서 외지 사람들이 하나의 관광객에게 이목을 끌 수 있는 숫대로 저희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컬러숫대라고 하는 것이 밤에도 볼 수 있게끔 야광숫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밤에도, 야간에도 색다르게 불빛을, 사진을 촬영해도 그런 하나의 컬러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하고 야간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컬러가 화려하게 조명될 수 있도록 한번 재조명을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렇게 뭔가 개보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 일대가, 숫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신성구역 소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데 숫대 말고도 이 주변을 어떤 희망소도로서 전체적인 와꾸를 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그거는 하나의 와꾸, 예전에도 전통 우리 예로부터 단순신화서부터 고조선 토속, 샤머니즘이란 어떤 토속신앙 마을입구에 가시면 애경사상이나 하나의 정월대보름 때 희망, 희망을 빌수 있는 하나의 소도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소도에 들어갔을 때는 죄인도 거기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는 특별한 신성한 구역을 저희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액운을 날려버리고 앞으로 모든 관광객들에게 안녕과 희망을 기원할 수 있는 것으로 희망소도, 민간신앙의 상징물, 신령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하나의 신성구역을 하나 조성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재신 위원 예, 이렇게 반드시 관광상품에는 이야기를 담을수록 좋아요. 이야기를 담으면 하나의 스토리가 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마한의 옛 땅입니다, 마한지역이거든요, 삼한 중에. 숫대가 가장 많이 신성구역이 마한이 많았어요. 그런 컨셉도 우리하고 접목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전 관광객들한테 뭔가 재미를 선사해주려면 소도 구역을 뭐로 표시해 가지고 남녀 데이트하다가 여자가, 또는 남자가 여자를 딱 데리고 소도 안으로 짹 들어갔어. 그러면 때린 거는 폭력인데 소도 안으로 딱 들어갔으니까 난 무죄야, 이러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런 것 쪽 구상을 해 보시고 창의적으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문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아마 제가 지역구라서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옥순봉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서 케이블카와 옥순봉 출렁다리, 즉 단양에서 옥순봉을 보러 왔다가 그냥 빠지기보다는 케이블카 가는 데 중간에 능강숫대라고 있다고 하더라, 이러면 굉장히 징검다리로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조금 17년 동안 늘 주목받아왔던 관광상품이기 때문

에 개보수하면 충분히 좋은 명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다 이해하고 좋습니다. 출렁다리와 케이블카 그 다음에 제천으로 이어지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17년 됐는데 연간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저희가 지금 운영비가 2,100만 원 정도...

○**김병권 위원** 얼마요? 운영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2,100만 원.

○**김병권 위원** 연간 2,100만 원에,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일반 공공요금에 전기 요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연간 다 해서 얼마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한 일부 빼서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 뒤에 새로 건축 지어놓은 게 휴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김병권 위원** 뒤편에 휴양시설이 뭔가 운영되고 있죠? 건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 위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체험장.

○**김병권 위원** 체험장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체험장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거기는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다른 거기 이쪽에 능강솟대마을 공간하고 별개입니다, 거기는. 별개로 운영되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8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17년 됐고 이게 노후화 됐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17년 됐으면 자생력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이 이것을 지금 출렁다리, 케이블카 이후에 출렁다리 걸으면서 엄청난 관광객이 오고 솟대 가보면 들러가는 어떤 귀한 관광의 자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도 분

명한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연간 위탁 지원도 해주고, 3천만 원씩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싹 바꿔서 해준다. 그 다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밤에 컬러풀해서 하는데 야광으로 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야광보다는...

○**김병권 위원** 야광페인트로 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김병권 위원** 야광페인트로 해서 그게 밤에 보이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야광에, 그런 거를 아마 지금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야광으로 하겠습니까, 야광으로.

○**김병권 위원** 아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야광으로 하는 방법을 택해보고 안 되면 조명시설을 해서 컬러를 하는데 지금 저희는 컬러 자체에 조명을...

○**김병권 위원** 출렁다리가 개장시간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지금 5시로 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5시면 출렁다리 이후에 거기 관광객이 다 빠지면 그 이후에 관광객이 몇 시에 밤에 거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저희 관광객들이 그쪽에 오면 6시, 1시간 정도 보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일부 다른 데 또 관광지가 있으니까.

○**김병권 위원** 이쪽은 옥순봉이나 출렁다리를 지나가기 위한 관광객이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보고 지나가는 거지만, 그 관광객 빠지고 나면 일부 관광객 거의 없는 데예요. 그런데 그게 밤에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컬러풀하고 조명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도한다? 조금 무리수를 두시는 거 아닌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 안에는, 내에 전시관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밖에는 전시 소도, 희망소도구역을 설정해서 해 놓으면 그쪽에 가서 어느 정도 컬러로 많은 솟대가 있다 보면 하나의 사진촬영장소로 명소화 저희는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명소화 되고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걸 통해서 솟대에 찾아오는 인기가 될 수 있지만 밤에 관광객이 거기를 찾아온다. 제천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거는 조금, 이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관광객 올지 모르지만 그거 하고 또 하나가 거기를 위탁 관리하는 사람의 자생력, 최소한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위탁비,

운영비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정비 이것만 바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때는 그 예산의 타당성, 적정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어떤 그런 자립과 자생력을 갖추는 노력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다, 우리도 거기를 한번 살펴보자.’ 그거 해줄 텐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지금은 현재 아드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호씨 본인은 고령화로 인해서, 예전에는 부인하고 같이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런데 하여간 지금 체험, 체험학습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학습이 중단되다 보니까 운영이 조금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체험행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합니다. 저희는 희망숫대구역을 별도로 하나의 관광상품...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걸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고 거기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숫대라는 공간을 제시하고 널리 홍보하고 제천에 어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비에서 처음에 나왔던 조감도 이렇게 보면 이거 가지고 1억 3천만 원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자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걸 보면 도대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고민하고 그 분도 시 예산을 갖고 지금 운영해가는데 조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저희도 그 부분은 더 협력을 해서 그 부분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17년 됐습니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홍석용 위원** 17년 동안 우리 시가 거기에 쏟아 부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올해는 2,100만 원이고 예전에는...

○**홍석용 위원** 17년 동안 쏟아 부은 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17년 동안 쏟아 부은 거라면 한 2억 원 정도 운영비로 썼고 거기 시설비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제작한 게.

○**홍석용 위원** 소장님, 개인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개인입니다.

○**홍석용 위원** 운영호라는 분이 개인이잖아요. 그죠? 영구 임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아닙니다. 영구 임대는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17년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저희는 매년 3년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7년을 운영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도 우리도 매년 임대자를 전국구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홍석용 위원** 왜 안 바뀌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홍석용 위원** 희망하는 사람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 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먼저 작년에...

○**홍석용 위원** 잠깐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홍석용 위원** 소장님, 우리 시가 건물을 지어주고 유지관리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전기세까지 다 내주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분이 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까, 거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나무 심고 밑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홍석용 위원** 적어도 스토리를 만들려면 킬러숫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숫대를 제작하는 사람이예요. 저거 한 달에 1개씩은 특이한 숫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세웠어야죠. 이제는 그걸 만드는 것도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돌탑? 스토리가 있으려면요. 적어도 제천 17개 읍면에 밭에서 나오는 돌이든, 하천 공사에서 나오는 돌이든 실어다가 돌탑 17개 만들고 거기에 이야기를 심으려고 17년 동안 했어야죠. 1년에 1개씩이라도.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본인은...

○**홍석용 위원** 저기 덕산에 가서 나무 좀, 어르신들 집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갖다가 심고 가꿨어야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본인은...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에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병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생, 스스로 살아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죠. 언제까지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개인이었다면, 개인이 그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짓고 숲대문화공간을 했다면 그런 예술인이란 그런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데 가 보세요. 개인 돈 들여 가지고 하는 카페든, 문화공간이든,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17년이면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변화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또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언제까지. 이 능강숲대문화공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적일 수 있느냐. 물론 예술, 무슨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술가라면 스스로 그 예술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죠. 거기에 관광객들이 감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다른 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되셨다면 아마 지금 이 능강숲대공원에 오는 관광객의 몇 배는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7대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제발 그 분한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해봐라. 아니, 어떻게 숲대를 만드시는 분이 숲대 제작비를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한 달에 1개씩만 만들었어도 지금 그 주변이 정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존,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스스로도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됐을 거예요. 돌탑 만드는데 900만 원 요구했어요. 제가 경운기 끌고 돌 실어다 쌓아도 9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1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간판 정도야 시에서 해줄 수 있다고 칩니다. 간판 정도는. 나머지를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소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2005년도부터 여태까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지속성이 있는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라. 그 뒤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지원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 병 권	김 홍 철	이 재 신	이 정 현
유 일 상	주 영 숙	하 순 태	홍 석 용

○위원 아닌 의원

김 대 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허 남 철
전 문 위 원	임 지 영
전 문 위 원	유 달 현
전 문 위 원	정 상 진

○출석공무원(제천시)

제 천 부 시 장	박 해 운
행 정 지 원 국 장	엄 세 진
문 화 복 지 국 장	윤 이 순
경 제 산 업 국 장	원 용 식
안 전 건 설 국 장	김 선 경
도 시 성 장 추 진 단 장	조 완 형
보 건 소 장	윤 용 권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장 희 선
홍 보 학 습 담 당 관	김 대 영
감 사 법 무 담 당 관	이 용 미

자 치 행 정 과 장
기 획 예 산 과 장
관 광 미 식 과 장
여 성 가 족 과 장
안 전 정 책 과 장
자 연 치 유 특 구 과 장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심 상 현
송 민 호
김 찬 향
유 재 숙
유 현 상
이 승 호
박 수 정

○기록 담당 공무원

속 기 사

공 유 란